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1면	도내 시·군 신년인사회 ... “경기 회복·강원특별자치도 발전...	1
江原日報	02면	도내 시·군 신년인사회 개최	1
江原日報	12면	“시정·시민사회 지역발전 원팀되자”	2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경제위기 극복 지역발전 선도 다짐	3
강원도민일보	12면	김홍규 시장 "강릉 발전 신기원 열 것"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감시·견제도 특별하게”	4
江原日報	19면	[특별기고] 드림프로그램 꽃피우는 강원2024	5
ms투데이		(기획) 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플라스마 공장 ...	6
江原日報	16면	철원JC 신년인사회	9
강원도민일보	16면	철원군 신년인사회	9
江原日報	13면	인제군신년교례회	9
江原日報	15면	정선청년회의소·특우회 신년인사회	10
江原日報	15면	평창청년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10
江原日報	10면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 발전 원년 만들자”] 홍천군번영회	11
강원도민일보	15면	[신년인사회] 정선군	11
강원도민일보	15면	[신년인사회] 평창군	11
江原日報	14면	"미래산업 개척 소통·협력"	12
江原日報	13면	“4개 시·군 공동이익 창출 힘 모으자”	13
강원도민일보	13면	"천만관광도시 실현 경제회복"	13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14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14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4
강원도민일보	01면	시내·농어촌버스 지원금 '뚝' 도민 세수악화 실감	15
강원도민일보	04면	"진료 끝나니 12시간" 강원대병원 기약없는 기다림 여전	16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막바지 점검 총력	16
강원도민일보	23면	"겨울철 혹한 대비 준비 만전... 선수경험 살려 성공개최 약...	17

강원도민일보	22면	"안전한 동계청소녀올림픽 만들 것" 경찰·소방 준비 만전	17
강원도민일보	16면	'빙판 위 열전' 화천 전국얼음축구대회 열린다	18
강원도민일보	14면	'인삼 송어가 온다' 홍천강 뽕뽕축제 내일 개막	18
강원도민일보	11면	'지지부진' 원주 판부·신촌 관광개발 백지화	19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북한강 수변 대형 숙박시설 확충 가시화	19
江原日報	02면	강원도 작년 기온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생활인구 반영 재정·SOC 필요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 정치 테러 근절 계기 삼아야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집요함 보여야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31년 만의 동해안 지진해일, 현장 중심 대책을	24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1면

도내 시·군 신년인사회 ... “경기 회복·강원특별자치도 발전 이끈다”



춘천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춘천 스키아리엔선에서 김진태 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정진우 춘천지검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전수산 춘천상의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원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 주최 신년인사회가 3일 원주 호텔인터블고에서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기관·단체장, 경제계 및 교육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 2024년 강릉상공회의소(회장: 김형익) 신년인사회가 3일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대명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2면

도내 시·군 신년인사회 개최 -1면에서 계속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참석자들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 속초상공회의소는 마레몬스

호텔, 동해상공회의소는 현진관광호텔, 태백상공회의소는 오투리조트, 삼척상공회의소는 쏠비치리조트에서 각각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경기 회복 등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2024년 01월 04일 (목)

江原日報

지역 12면

“시정·시민사회 지역발전 원팀되자”

강릉상의 신년인사회

지역경제인 300여명 참석
올림픽 성공 퍼포먼스도

【강릉】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강릉지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강릉상공회의소는 3일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형익 강릉상의 회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 김홍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 김현석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문영권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마남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우승룡



◇2024년 강릉상공회의소(회장:김형익) 신년인사회가 3일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일보 강릉본부장과 지역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남녀합창단 ‘에브리싱 코러스’가 축하공연을 선보였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어 참석자들이 대회 슬로건인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가 적힌 색종이를 함께 펼치는 모습도 연출했다.

김형익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정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원팀 정신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한 강릉, 깨끗한 강릉, 정직한 강릉’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경제위기 극복 지역발전 선도 다짐

2024년 01월 04일 (목)

경제 06면

춘천·원주·강릉상의 신년인사회

도내 경제 기관·상공인 한자리에
현안 논의·의견 교환 등 소통 강화
김 지사 “경제 상황 회복되기를”

갑진년 강원경제계 발전을 이끌 강원지
역상공인들과 경제 기관, 협·단체 관계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경제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상공회의소들은
3일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원주
(호텔인터불고원주), 강릉(강릉라이
센드파인리조트), 삼척(솔비치삼척
그랜드블룸), 속초(속초마레몬스호
텔), 동해(동해현진관광호텔),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각각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춘천상공회
의소(회장 고광만)는 김진태강원특별
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
천시의회 의장, 박기영·양숙희 도의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가 주최한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지역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 전수산 춘천상의 고문, 김중석 강원
도민일보 회장 등 도내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을
기원하고, 도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전수산 춘천상의 고문
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해 다양한 강원 산업
들이 발전하고 올해 도내 경제가 회복
되기를 바란다”라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푸른용의해, 춘천이바로 용이다”라며
“상상하던 모든 일들이 올해에 이루어

지고, 강원 전산업계의 경제 상황이
더욱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는 기
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는 기
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는 기
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릉상공회의소 주최 2024 신년인사회가 3일 강릉라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 내륙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강릉상공회의소(회장 김형익)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해 더 크고 따
뜻한 희망의 강릉을 만들기 위한 결의
를 다졌다.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
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
장, 심재빈 강릉시노인회장, 김현석 춘
천시법 강릉지원장, 문영권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
관·사회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갑진년 용띠 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안
녕, 건강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눴다. 김
형익 상의회장은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릉시민들의 저력과 역량을 한데 모
아 오는 19일부터 개최되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
고 강릉시의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
목표를 이루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홍성배·이기영·황선우

▶관련기사 12·13·17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2면

김홍규 시장 “강릉 발전 신기원 열 것”

기관·단체장·상공인 신년인사회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 논의
강원대회 범업 퍼포먼스도 펼쳐

강릉시 기관·단체, 상공인들이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
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0
대 관광도시 진입에도 협력체제를 구
축키로 했다.

3일 강릉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
에서 강릉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갑
진년 신년인사회에서 500여명의 기

관·단체장과 상공인들은 보름 앞으
로 임박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1월 19일~2월 1일) 성공개최 퍼포먼
스를 펼치며 한 마음 의지를 다졌다.

김홍규 시장은 “옥계항 국제 무역
항 발돋움, 천연물바이오 허브 단지
조성, 경포권 관광 발전 사업 등을 통
해 강릉 발전의 신기원을 열겠다”며
“우선 깨끗한 강릉, 친절환 강릉, 정직
한 강릉을 만드는 시민운동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은 이미 2018년 동계올
림픽을 역대 최대 성공 대회로 개최
한 저력이 있다”며 “세계 청소년들에
게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자”고 덧붙였다.

또 김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정예



강릉시 기관·사회단체장들은 3일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파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당초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0억원 가량 줄었
지만, 국비는 역대 최대인 4217억원
이 확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강릉~고성 제
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공사는 남북
경협사업으로 추진했기에 예비타당
성 조사가 없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바로 착공할 수 있었다”며 “소통과 협
력, 열정, 연구하는 자세가 있다면,

지역은 훨씬 커지고 발전한다”고 말
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과 김기영 시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
해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강릉 발
전 현안을 공유·협력하는 의회를 구
현하고 있다”며 “우선 지구촌 꿈나무
들의 잔치인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
공 개최하는데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
자”고 주문했다.

홍성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감시·견제도 특별하게”



KBS뉴스 페이스북·유튜브·KBS+ 앱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 강원도가 나아갈 길을 미리 짚어보는 신년 기획 보도 순입니다.

오늘은(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어떤 모습일지 미리 그려봅니다.

권혁열 의장을 고순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초대 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게 된 강원도의회.

새해 화두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직 미완성인 강원특별법 특례의 완성도 높이기입니다.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3차 개정안에는 그동안에 미반영된 걸 모든 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켜서 반드시 특별자치도가 성공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교육을 확대하고, 의정 연구 모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듭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분기별로 수시로 유능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하 3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사무처 공직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회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예산을 다시 추경이라든가 이때 반영하는 것 이렇게 상당히 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특별자치도 초대 의회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권혁열 의장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고순정 flyhigh@kbs.co.kr

江原日報

2024년 1월19일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막이 오른다. 전 세계 80여
개국 15세에서 18세까지 남
녀 선수 1,900명과 올림픽
패밀리 등 1만5,000여명이
강원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일원을 찾아 설상, 빙
상, 슬라이딩 등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의 경기에 참여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더
반가운 것은 강원자치도 개최의 결정
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20주년을 맞
는 ‘드림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드
림 프로그램’은 눈과 얼음이 없는 국
가들의 13~23세까지의 청소년을 초
청, 동계스포츠와
우리 문화의 체험이
주목적이었다. 그러
나 이제 ‘드림 프로

그램’은 2018을 넘어 지금까지 전 세
계 97개국 2,528명이 참가한 화합과
배려, 소통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으
로 자리 잡았고, 세계 각국의 IOC위
원들에게 ‘평창=드림 프로그램’으로
각인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선수 221명 포함,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 2,528명 중 150명은
국제대회 선수로 참가해 소속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등 드림 프로그램은 유
럽과 북미권 중심의 동계올림픽이 눈
과 얼음이 없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그 지평을 더 확장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별기고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동계스포츠 지도자 ‘타마라 제이콥스’, 말레이시아 피겨 선수 ‘줄리안 즈지에’ 등을 비롯해 루지 등 고난도 동계스포츠 종목에서 많은 자국의 국가대표급 선수를 배출해 왔다. 이 같은 열정이 모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도 ‘드림 프로그램’ 출신 15명이 선수로 참가한다.

드림 프로그램 꽃피우는 강원2024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은 경기장 시설과 KTX로 대표되는 유형자산이 있다면 드림 프로그램과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는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18 유치 당시 경쟁 도시인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캐나다 밴쿠버를 상대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이 역시 2024년 20주년을 맞는다.

강원자치도의 이러한 정성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저력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연결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2024년 01월 04일 (목)

오피니언 19면

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스포츠 종목의 경쟁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강원자치도가 20년을 이어온 드림 프로그램은 창의적 발상이며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300만 도민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주년이 되는 2024년 1월5일부터 청소년올림픽 개막식 전 15일까지 장애인 선수 20명을 포함해 100명의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선수, 문화·예술 부문 20명 등 세계 각국 12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드림 프로그램 20주년 기념행사와 올림픽 대비 동계 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번 기념행사는 드림 프로그램의 한 획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의미 깊은 행사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의 역량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드림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성을 위해 강원자치도의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예술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강원형 K-컬처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이뤄 내는 것이다.

(기획) 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 플라스마 공장 경매로

진광찬 기자

태백 규제특구 핵심社 그린사이언스
발전소 못 열고 반 년만에 특구 박탈
보조금 부정 의혹, 업체 수사의뢰
R&D 사업 몰아주며 혈세 30억 낭비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줄줄이 납품

강원특별자치도에 '세계 최초 플라스마 발전소'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불러일으킬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린사이언스가 공장을 경매로 내놓는 등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태백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장비 구매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들인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는 반년 만에 해제됐고, 자치도 행정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강원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은 이번에도 헛발질로 혈세 30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데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강원 미래 산업에 대한 꿈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플라스마 기술 선도업체로 꿈꿨던 그린사이언스 태백 공장이 최근 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위해 장비 구매 명목으로 도 보조금 18억원을 받았지만, 이 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2일 본지가 태백 소재 그린사이언스 공장과 발전소를 방문했는데, 각각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사업을 발주한 강원테크노파크는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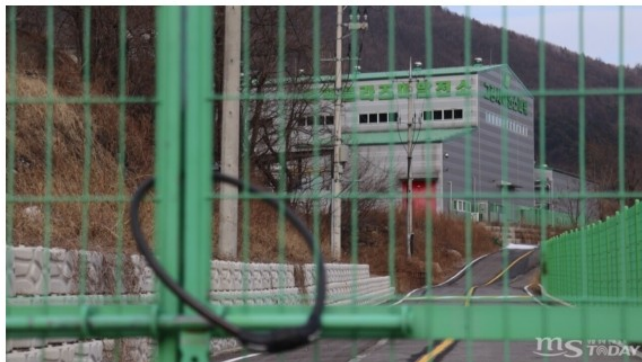
그린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마 발전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플라스마란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상태로, 고온에서 이온과 전자가 분리돼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린사이언스는 2011년부터 '마이크로 웨이브 플라스마 토치'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플라스마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백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강원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은 그린사이언스 의뢰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플라스마 산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발전소는 2021년 4월 완공했지만, 2년 넘게 발전소 가동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2일 태백 철암동 소재 그린사이언스 공장의 문이 잠겨 있다.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악화로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는 반년 만에 박탈당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그 사이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5월 태백 일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을 따냈다. 특구 사업 핵심 근거지는 그린사이언스가 만든 발전소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전소 가동 소식이 없다는 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강원자치도에 특구 지정 해제 의견을 전달한 뒤에서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업체는 이미 경영 부실로 국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해당 특구(51만3565㎡ 규모)에서는 2027년 5월까지 폐목재 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린사이언스를 비롯해 (주)SK에코플랜트, (주)제이엔케이히터, (주)제아이엔지와 강원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그린사이언스의 부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1월 특구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그린사이언스의 2022년 12월 기준 당기순손실은 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애초에 190억원을 웃도는 특구 사업 규모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태백 철암동 소재 그린사이언스 발전소의 문이 잠겨 있다.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악화로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는 반년 만에 박탈당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태백 현지 취재 결과 그린사이언스 공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지가 방문한 공장 내 사무실 집기는 그대로였지만 오가는 사람은 한명도 볼 수 없었다. 사무실 어떤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 직원들은 "한두 달 전부터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발전소와 공장 모두 자금난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 대표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안팎에서는 그린사이언스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플라스마 기술 전체가 통째로 사기극이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이 업체는 2013년 부지매입·설비투자 비용으로 보조금 10억4500만원을 받고 대전에서 태백 장성농공단지로 이전했다. 당시 도정과 그린사이언스는 최첨단 플라스마 가스화 발전 기술 실증화가 성공하면 낙후된 폐광촌에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수 있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한영(태백) 강원도 의원은 "10년 전쯤 그린사이언스 대표가 태백시민 1000명을 모아두고 한 무대에서 플라스마 산업 시범까지 보였는데, 지금 말하면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강원자치도의 피해는 극심한 상태다. 그린사이언스는 2021년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과 함께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총 보조금 4억5000만원)을 맡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중단됐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해 7월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불성실 중단 조치'를 내렸다.



2021년 3월 태백 철암동 그린사이언스 철암 발전소 완공식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이 과정에서 강원자치도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은 2010년대부터 '첨단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폐석활용 플라스마 가스화 발전소 및 유리산업플랜트 조성 타당성 분석' 등 그린사이언스가 위탁한 수백장짜리 연구 보고서를 줄줄이 발간해 오히려 당위성을 더했다. 2013년에는 그린사이언스와 함께 '플라스마 발전과 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이번 일이 "자료상 지원 조건에만 맞으면 철저한 검증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 기업체가 진짜 기술력이나 현실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기술 상용화 사업이 아니라 기술 실증사업에 세금을 투입했는데, 남들 사업의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주는 관행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백=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6면



철원JC 신년인사회 철원JC(회장:이태용)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11시 동철원농협 컨벤션홀에서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및 군의원,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6면



철원군 신년인사회 철원청년회의소(회장 이태용) 주최 철원군 신년인사회가 8일 동철원농협 컨벤션센터에서 이현종 군수, 한중문 부의장, 강세용·김광성·이다은 군의원,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김동문 농협 지부장과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3면



인제군신년교례회 인재청년회의소(회장:김용현)가 주최한 2024년 제군신년교례회가 3일 인제체육관에서 최상기 군수와 엄윤순 도의원, 김도형·신동성·황현희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5면



정선청년회의소·특우회 신년인사회 정선청년회의소와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회장: 고창민) 주관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연회장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청년회의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5면



평창청년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2024년도 평창군 신년인사회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 의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청년회의소(JCI 회장: 박경서) 주관으로 열렸다. 평창청년회의소는 이날 평창군에 이 옷돕기 성품으로 쌀 500kg을 기탁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0면



◇홍천군번영회는 3일 홍천 크리스탈컨벤션웨딩홀에서 '2024년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홍천군번영회

홍천지역 기관·사회단체 장들이 홍천 광역철도 구축을 비롯한 지역 발전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홍천군번영회는 3일 홍천 크리스탈컨벤션웨딩홀에서 '2024년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용문~홍천 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이규설 번영회장 겸 홍천 철도범 군민추진위원장은 "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용문~홍천 철도 예타 통

과,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록 홍천군의장은 "군의회도 지역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홍천군·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사회에는 신영재 군수, 박영록 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김광수·나기호·용준순·용준식·이광재·황경화 군의원, 김숙자 홍천소방서장,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오인철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전성열 NH농협 홍천군지부장, 민병준 홍천양수건설사업소장, 허필홍 전 홍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홍천=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5면



정선군 정선청년회의소·정선JC특우회가 주관한 정선군 신년 인사회가 3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연회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최철규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5면



평창군 평창청년회의소(회장 박경서) 주관 평창군 신년인사회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4면



◇2024년 동해시 신년인사회가 3일 동해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동해상공회의소(회장: 김규태) 주최로 열렸다.

“미래산업 개척 소통·협력”

동해시

동해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동해시 신년인사회가 3일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동해지역 상공인들이 미래 개척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김기하·유순욱 도의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수 (사)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 최복순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 우용철 (사)동해시번영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규태 동해상의 회장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동해신항 개발 등 미래를 위해 개척해 가는 사업 모두 제대로 된 방향성 아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2,000만 관광객 시대, 환동해권 미래 산업 물류 글로벌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모든 분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동해시의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의 세수 감소로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소통을 발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전명록기자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3면

江原日報

“4개 시·군 공동이익 창출 힘 모으자”

설악권 상의 신년인사회

【속초】속초상공회의소(속초·고성·양양·인제)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려 설악권 4개 시·군 공동 이익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정용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이양수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명길 속초시장, 김일용 고성군의회장, 오세만 양양군의회장, 이준만 인제군의회장, 김시성·강정호·원미희 도의원을 비롯한 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설악권 4개 시·군 공동의 이익 창출에 협력하



◇속초상공회의소(속초·고성·양양·인제) 2024년 신년인사회가 3일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렸다.

자며 의지를 다졌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새해에도 공직자와 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설악권이 세계

에서 주목받는 잘사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엄정용 속초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상공인들은 얌은 껍을 쓰면서 이익만 쫓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3면

“천만관광도시 실현 경제회복”

삼척상의 신년인사회

수소산업 등 4개 핵심사업 박차

삼척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경제·산업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

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척상공회의소는 3일 쏘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정희수 상의회장 등을 비롯해 박상수 시장과 정정순 시의장, 심영근·조성운 도의원, 박재욱 대한노인회 삼척지회장, 최선도 문화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희수회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은 피할 수 없



2024 삼척상공회의소(회장 정희수) 신년인사회가 3일 쏘비치 삼척에서 열린 가운데 박상수 시장 등의 신년사와 건배제, 합동세배,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는 숙명이자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시장은 “올해는 핵심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쟁력 있는 수소 산업도시 △동해안 대표 스포츠 도시 △도계 경제 활성화 △천만 관광도시 삼척 실현 등 4가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정정순 시의장은 “올해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상공인들과 전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활력이 넘치는 삼척,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인물동정 10면



정재웅 도
의회 사회
문화위원
장은 4일
오전 10시

퇴계중학교에서 열리는 제1회 졸업식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인물동정 13면



심영곤(삼
척) 도의
회 운영위
원장은 4
일 오후 5

시 울산광역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
영위원장협의회 제10
대 후반기 4차 정기회
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인물동정 21면

◇심영곤도의회운영위원장



(삼척)은 4일 오후
5시 울산광역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

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4차 정기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4년 01월 03일 (수)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5시 울산광역시 머큐어앰배서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4차 정기회에 참석.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춘천 퇴계중 체육관에서 열리는 퇴계중학교 제1회 졸업식 축하 격려 행사에 참석.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4일 오후 1시30분 양양초교 과학실에서 열리는 양양초교 제102회 졸업 표창장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1면

시내·농어촌버스 지원금 ‘뚝’ 도민 세수악화 실감

버스업체 손실보전 재정지원금

도·시군 올해 예산 45억원 ↓

추경서 120여억원 확보 필요

보통교부세 1조원 이상 ↓ 우려

강원도 및 도내 시·군의 올해 예산에서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45억원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 악화 여파가 ‘도민의 발’인 버스업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2024년도 예산에 담긴 도내 18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은 총 358억 36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총액(404억 1736만원)과 비교해 45억 8039만원(11.3%) 감소한 규모다.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예산이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운송 비용과 운송 수익금을 정산해 산출된 손실액을 각 지자체가 80~100% 수준에서 보전한다. 강원도가 이중 30% 수준을 지원한다. 시내·농어촌버스 인허가권은 각 시·군 단체가 갖고 있다.

예산안 기준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감소폭은 춘천시 34억 4482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원주시 10억 2260만원 △홍천군 7억 5832만원 △속초시 4억원 △영월군 2억 4668만원 △정선군 1억 633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양군(4억 3000만원)과 삼척시(2억 8423만원), 인제군(2억원) 평창군(1억 7505만원)의 경우 예산안 기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시·군별 버스업체 손실액은 매년 10월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연구용역에 따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예산 현황 출처/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단위/원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3년 최종 재정지원금
총합	404억 1736만	358억 3697만	482억 6452만
춘천	119억 2857만	84억 7975만	132억 362만
원주	19억 801만	8억 8540만	28억 7132만
강릉	45억 4115만	45억 4115만	37억 8624만
동해	19억	19억	21억 177만
태백	8억 9415만	10억	21억 9393만
속초	15억	11억	22억 6000만
삼척	11억 7022만	14억 5446만	29억 1807만
홍천	32억 5832만	25억	40억 7401만
평창	19억 5394만	21억 854만	19억 5394만
영월	13억 7800만	11억 3132만	14억 3289만
평강	15억 2301만	16억 9807만	17억 3106만
정선	25억 5072만	23억 8742만	22억 676만
철원	18억 4132만	19억 1251만	17억 9235만
화천	2억 8350만	1억 6197만	4억 7073만
양구	9억 5095만	10억 2304만	10억 2304만
인제	15억	17억	19억 6263만
고성	4억 3544만	5억 2331만	12억 3140만
양양	9억	13억 3000만	10억 5068만

라 최종 산출된다. 각 지자체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 업체에 지원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은 △2021년 434억 7068만원 △2022년

502억 7322만원 △2023년 482억 6452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이같은 규모를 보인다면 도내 시·군은 본예산(358억 3697만원) 대비 추경에서 120여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세수 악화다. 지난해 국비가 50조원 정도 덜 걸리면서, 강원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당초 정부의 교부결정액(7조 1222억원)보다 1조 1600여억원을 적게 받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 5000여억원)보다 33조 1000억원 감소한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추경에서 재정지원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업체 손실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두 보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4면

“진료 끝나니 12시간” 강원대병원 기약없는 기다림 여전

응급실 대기시간 문제 지속

“기다리라 되풀이...개선 없어”

전공의 모집 미달 인력난 심각

병원 “필수와 수당 지원 추진”

속보=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70대 환자가 대기 중 심정지 상태로 숨진 일이 발생(본지 12월 26일자 4면 등) 이후에도 응급실 대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병원 측이 인력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으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여서 의료인력난으로 인한 도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A씨(74)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결석 때문에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

았다. 앞서 일반병원을 방문했으나 진료가 어렵고 진통제만 처방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병원 측의 권유도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기 환자는 10명에 달했다. 그 후로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됐다. 언제쯤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도 병원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가 진료를 받고 응급실에서 나온 시간은 3일 오전 4시. 꼬박 12시간만이다. A씨는 “대기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중증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대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

앞서 강원대병원은 지난달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도착 7시간만에 심정지 상

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응급실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응급실 개선의 핵심인 응급의학과 촉탁의 채용의 경우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의료진 인력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미달을 기록, 전공의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강원대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 전공의 4명, 간호사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공의 4명 중 1명은 분만 휴가, 1명은 수련종료로 인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채용 공고를 계속내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다”며 “우선은 필수와 육성수당 지원 등 다양한 모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4면

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막바지 점검 총력

국가대표·연예인 릴레이 응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2024 강원대회) 막바지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진태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대회의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주에 이은 2차 점검회의로 △막바지 홍보대책 △자원봉사자 봉사여건 개선 방안 마련 △대테러 대비 점검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텔레비전·전광판(200개소)과 전국 작은영화관(39개소)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4일부터 개최 당일인 19

일까지 전·현직 국가대표와 유명 가수, 개그맨의 릴레이 응원도 진행한다. 올림픽 개최 시·군(강릉시·횡성군·평창군·정선군)에는 안전보안관 200명을 운영하며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선수촌과 경기장을 대상으로 선수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도 막바지 점검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은 4일 평창군과 강릉시에 위치한 대회 경기장, 선수촌, 개막식장 등을 점검한다. 김진태 지사는 “대회 개최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매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보름 정도 남은 기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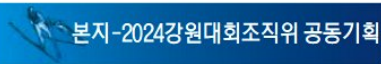
▶관련 인터뷰 23면

2024년 01월 04일 (목)

강원도민일보

인물 23면

“겨울철 혹한 대비 준비 만전... 선수경험 살려 성공개최 약속”



본지·2024강원대회조직위 공동기획

인터뷰 | 진종오 조직위원장

2024강원대회 마무리 작업 총력

야외 난방쉼터 마련 등 시설 보강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막(19일)을 앞두고 진종오 대회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향한 막바지 ‘총력담금질’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맡은 조직위원장으로의 막중한 임무를 실수없이 완수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선수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끝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위원장은 대회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현재, “지난해 10월 대회가 열릴 경기장에 대한 보수보강 및 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설상 경기장의 제설작업 등 경기장 조성도 차질없이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4개 개최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겨울철 혹한과 안전 문제를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최우

선 과제로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조직위는 혹한에 대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라운지(대기공간)를 확대하고 난방 시설을 보강했다”며 “설상배뉴 등 야외경기장을 보러오는 관중들을 위한 난방 쉼터 및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2024강원대회는 대한민국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준비하는 국제대회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응원 부탁드립니다”며 “조직위도 대회 불조성과 차질없는 준비로 대회 성공 개최를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인물 22면

“안전한 동계청소년올림픽 만들 것” 경찰·소방 준비 만전

윤희근 청장 강릉 방문 현장점검
13일부터 경찰종합상황실 운영
소방인력 182명·차량 49대 배치

경찰과 소방이 안전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강릉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강릉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지원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이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식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방문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등과 만나 준비상황 점검 및 안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강릉 등 개최지 경찰서장 등과 함께 경기·안전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윤희근(사진 왼쪽) 경찰청장이 3일 강릉을 방문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3일 오전 소방본부 전략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종합대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근무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원 등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경찰은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시설 현장 점검과 모의훈련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는 오는 13일부터 강릉 종합운동장 내에 경찰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회 기간 내내 선수촌 및 경기장 등에 경찰특공대 등 최대가용경력 총 2만

1933명을 전진 배치(하루 약 1024명 투입)해 테러예방 등 순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도 3일 본부 전략회의실에서 올림픽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종합대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도소방본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주요 대회시설 등 15곳에 대해 소방인력 182명, 차량 49대를 개·폐회식장 등 중요 장소에 전진 배치한다.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경찰역량을 집중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6면

‘빙판 위 열전’ 화천 전국얼음축구대회 열린다

13~14일 산천어축제 얼음축구장
내일까지 접수 참가비 7만원
안전장구 착용·5대5 단체대결



얼음축구동호인들이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얼음축구를 즐기고 있다.

전국의 얼음축구동호인들이 올해도 화천에서 500만원의 우승상금을 놓고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화천군 체육회(회장 송호관)와 화천군 축구협회는 2024 산천어얼음축제기간인 오는 13, 14일 이틀간 축제장에 마련된 얼음축구장에서 ‘2024 산천어축제 전국얼음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얼음축구대회는 빙판 위에서 안전

장구를 착용한 5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팀과 겨루는 단체 스포츠로 1팀당 최대 10명(20세 이상)까지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선수 중 경기당 7명(선수 5명, 후보 2명)이 출전할 수 있으며 매경기마다 명단을 변경

할 수 있다.

경기는 첫날 예선 리그전을 통해 결선 진출팀을 가린 뒤 둘째 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선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10분씩, 20분이며 하프타임은 5분이다.

참가 신청은 5일까지 접수하며 7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참가비 전액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참가하는 셈이다. 올해는 여성부 경기를 신설했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1410만원으로 우승상금은 일반부 500만원, 여성부 100만원이다.

한편 군은 오는 6일 열리는 축제 개막식 행사에 주한 15개국 대사관 관

계자가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벨라루스와 알제리, 코스타리카, 페루 등 8개국 대사와 7개국 대사관 임직원 등 모두 4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개막 당일과 13일 2회에 걸쳐 외신 프레스 투어를 진행할 계획으로 17개 매체 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 얼음축구대회가 산천어축제의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며 “축제의 소식이 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익호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4면

‘인삼 송어가 온다’ 홍천강 뽕뽕축제 내일 개막

6년근 인삼사로 먹인 송어 활용
이상고온 대안부교 낚시터 조성
매일 결빙상황 점검 안전 최우선

제12회 홍천강 뽕뽕축제가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홍천강 둔치 주차장 일원에서 정상 개최된다.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유사 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여 맛과 크기, 육질까지 훌륭한 인삼송어를 활용한다.

축제개막을 앞두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 얼음결빙에 난항을 겪기도했으나 주최측의 빠른 대처로 부교낚시터와 루어낚시터를 조성, 겨울축제의 묘미인 얼음낚시터 외에도 다양한 낚시터를 구성해 관광객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본지 취재 결과 3일 현재 얼음두께는 18~20cm 사이로 안전상의 문제로 5일 개막일 얼음낚시터 입장이 제한된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얼음낚시터 외에 다양한 낚시터 조성으로 1700여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얼

음두께는 25~30cm 이상으로 문화재단은 6~7일 결빙상황을 살펴 8일 얼음낚시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매일 얼음두께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영재 홍천군수 역시 4일 축제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제 기간 얼음낚시를 비롯해 루어낚시, 부교낚시, 맨손인삼송어잡기 체험, 실내낚시, 무료민속얼음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어는 1인당 2마리만 반출가능하다. 문화재단은 축제 입장료 2만원

을 내면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홍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상품권)을 제공해 축제장 입점상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한기인 1월 한달간 지역주민 150여명을 고용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명준 문화재단 이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인삼송어를 통한 차별화된 축제, 온난화 기후에도 끄떡없는 축제로 운영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승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1면

‘지지부진’ 원주 판부·신촌 관광개발 백지화

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민간투자 위험성에 시의회 제동
웰니스형 산림레포츠단지 무산
주민 “안될 바엔 공공시설 확충”

지지부진하던 원주 판부·신촌 관광
개발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원주시는 원주천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판부면 신촌리
1096번지 일원에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최근 해제했다. 면

적은 73만4557㎡다.

2016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신
촌리에 건설 중인 원주천담과 주변
산림자원을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
하는 것으로,시는 2019년 해당 지역
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했다. 이어 2022년 6월에는 기간을 2
년 연장 (2024년 6월까지)했다.

시는 기한 만료를 약 6개월 앞둔 최
근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
단, 지난달 29일자로 제한지역을 해
제하고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당초 시는 이곳에 웰니스형 산림

레포츠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추정 사업비만 1400억원에 이르
는 초대형 규모로,시가 시유지를 현
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
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이다. 그러
나 시의회가 2021년 시가 제출한 ‘출
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전액 삭감
하며 제동을 걸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다. 이후 시가 자체 추진사업으로 변
경, 시의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올렸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을 겪

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줄어들고 일부 주
민들은 시에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제한
구역조기 해제를 건의키도 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 관련 시 설
명회에서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안
될 것이 뻔하다”며 조기 해제와 함께
상수도 공급 등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투자
등을 검토했으나 기한 내 추진이 어
려워 불가피하게 중단을 결정했다”
며 “주민 요구사항은 부서별로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지역 10면

춘천 북한강 수변 대형 숙박시설 확충 가시화

두산연수원 부지·위도 등 2곳
조성사업 행정 절차 밟는 단계
시, 연내 착공 목표 행정 지원

춘천시가 북한강 수변을 중심으로 숙
박시설 유치에 나서 고질적 문제로
짚혀 온 지역 숙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연내 조성 계획
이 가시화되는 숙박시설은 두산연수
원 부지와 위도, 모두 2개다.

두산연수원 부지의 경우 두산이
연수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시에 제출,
현재 춘천시가 검토 중이다. 춘천시
는 이르면 다음주 업체 측에 반영 여
부를 회신할 계획이다. 현재 두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컨벤션홀과
콘도 3개동 (4층·5층·11층), 호텔 1
개동 (13층)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
획은 추후 춘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야 확정된다. 두산연수원 부지에 숙
박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건축설
계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는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위도에 계획 중인 숙박시설은 지난
해 말 원주환경정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춘천시 서면 신매리 고슴도치섬
(41만5733㎡)에 1조1500억원을 들
여 1000개 규모의 숙박시설과 호텔,
인공해변, 마리나시설, 시민광장 등
을 조성하는 전액 민자사업이다. 진
출입로 개선과 건축·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돼야 착공에 들어갈 전
망이다.

춘천시는 해당 사업들이 연내 착공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선
다. 두 사업 외에도 북한강 주변에 숙
박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논
의한다. 대형 숙박시설 부재는 지역

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세계태권도협회 연
맹 총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세
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춘천코
리아오픈태권도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가 줄지어 있다. 숙박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대회의 성공개최를 장담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수사 중
인 ‘더레이크 시티 춘천’ 역시 1년째
답보상태다. 육동한 시장은 “호수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이 춘천의 새로
운 매력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숙박
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오세현

2024년 01월 04일 (목)

종합 02면

江原日報

강원도 작년 기온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연중 기획- 기후 위기, 해법을 제시한다

강릉 평균최고기온 사상 처음 20도 넘겨 선제적 대책 시급
 지난해 11월 최고·최저기온 차 24도 널뛰기 날씨 불편 속출

강원지역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이상고온을 비롯한 ‘극한 기후’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기상청의 2023년도 강원지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기상청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지역 평균최고기온은 20도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20도를 넘겼다. 평균기온도 15.5도로 가장 높았다. 춘천지역 평균최고기온은 18.4도로, 2021년과 함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후변화의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지역의 지난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인 평년기온은 17.8도였으나 2023년 들어 평균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올라 무려 2.2도 차이를 보였다. 기온 1도 상승은 심각한 가뭄과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후변화 심각성의 지표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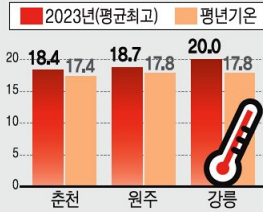
춘천지역에서도 지난 30년간 평년기온이 17.4도였던 데 비해 2023년 평균최고기온(18.4도)은 1도 증가하는 등 기온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북단 관측 지점 중 한 곳인 인제에서는 지난해 평균최고기온이 18.1도까지 올라 평년기온 17.7도에 비해 0.4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유입된 열적 고기압과 제트기류의 영향이 잦아지는 등 기후변화의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사이 도내에서는 최고기

도내 주요 도시
평균·평년기온 비교

단위: °C / 자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온과 최저기온 차이가 24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12월에는 20도 안팎의 봄 날씨를 보이다 갑자기 최저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널뛰기 날씨’가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1만5,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강원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30.4%가 ‘폭염’을 가장 두려운 자연재난으로 선택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주민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강원자치도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연구실장은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고 산지가 많아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만큼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서회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사설/칼럼 19면

생활인구 반영 재정·SOC 필요

-강원 주민등록보다 최대 5배...중앙정부 인구 관점 바뀌야

강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시도 지역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강원인구는 152만7807명으로 2022년에 비해 8691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18개 시군 중 16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실제 장단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일시 방문하는 등의 생활인구 규모는 등록인구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풍부한 관광지와 군부대가 밀도 높게 자리잡은 강원 특성으로 인해 실제 활동하는 인구 규모는 시군 최대 5배 정도 많습니

다. 군부대가 밀집한 철원군에서 생활인구 규모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인구 4만명대인 것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22만여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구만 보더라도 17만명대로 나타납니다. 요 몇년 새 서핑관광지로 급부상한 양양군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민등록인구는 2만명대이나 생활인구는 무려 7만명대로 조사됐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생활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비단 두 곳에 한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구가 더 급락하고 있는 강릉 시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강릉은

2023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2000명 가까이 감소해 21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내려앉았으며 20만명 붕괴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계절 강릉을 찾아 머무는 체류 및 생활인구 규모는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 숫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커다란 격차는 새로운 인구 관점에서 지방재정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전환을 요청합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부정적이었다가도 설치 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수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곳이 강원지역입니다. 다름아닌 생활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외부 방문객과 체류로 인해 쓰레기 발생과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처리비 부담이 가중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 운영이 감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이용 및 사회인프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생활인구 관점 도입은 한참 늦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기준점으로 기존 주민등록인구를 고집한다면 공공서비스 수요 공급의 괴리감만 더 초래합니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실물을 반영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사설/칼럼 19면

이재명 대표 피습, 정치 테러 근절 계기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치료 지원을 지시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사건인 만큼 철저히 범행 동기와 배후 유무를 규명해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배후가 있다면 심각한 일이고, 배후가 없다고 해도 가해자의 정치 성향 등에 대한 선부른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테러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가 커터칼 피습을 당해 지금까지도 얼굴에 10cm 정도의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2022년에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 부분을 3차례 이상 맞았다.

칼이나 둔기가 아니더라도 주먹 가격이나 달걀 투척 등을 포함하면 정치 테러의 빈도는 훨씬 높다. 민주 정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중대한 해악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폭력행위 근절을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진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퍼져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간의 언어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는 극렬주의자들의 팬덤정치가 정치폭력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4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선거전이 과열될수록 정치폭력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커진다.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각종 억측과 정치혐오를 담은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여야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극한 대립을 자제하고 이번 사건을 어떤 정치 테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4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집요함 보여야

-국제학교 등 정부 협의 난항 예상, 관철 의지 중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효과를 낼 특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개정 당시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던 특례들과 신규 특례들이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 이후 도 내 시·군과 도의회, 강원연구원 등과 함께 발굴한 70개 입법과제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에 대해 정부 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난항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형평성의 잣대를 뛰어넘을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도의 집요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70개 입법과제 중에는 2차 개정에서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한 특례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쟁점이 되는 개정안은 국제학교 설립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랜드 규제 완화입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에만 허용·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귀족학교 논란 등 교육 평등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 방식 개선도 과제입니

다. 도는 강원랜드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지노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면 폐광 지역에 배분되는 폐광 기금이 증가해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 계획을 제시할 경우 매출 총량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구 입주기업 상속세 감면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 역시 난관이 예상됩니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특례이지만, 중앙 부처는 형평성 잣대를 내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4차 개정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도는 야심 차게 추진하는 3차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개정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도 정치권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지역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4일 (목)

사설/칼럼 19면

31년 만의 동해안 지진해일, 현장 중심 대책을

지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질 대책이 절실하다. 일본 도야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해안에서도 31년 만에 지진해일이 관측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은 지난 1일 오후 6시1분 강릉 남향진에 최대 높이 28cm로 도달한 뒤 동해 묵호에서 85cm, 속초에서 45cm, 삼척 임원에서 33cm 등으로 관측됐다. 1983년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지진해일은 2일까지 총 3회이며, 모두 동해안 인근에서 발생했다. 동해안 지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2023년 5월15일 오전 6시27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4.5로 지난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크다. 강원과 경

북 내륙 지역 주민들까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 동해안에는 그해 4월23일부터 이날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무려 16차례 이어졌다. 바다는 단층 파악이 육지보다 어렵고, 이 지역에 지진을 유발한 응력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혹여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지진 예측은 힘들다. 기술의 한계와 단층을 모르는 탓이 크다. 정부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듬해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시작했으나 2036년에야 마무리된다. 국민 불안감을 감안하면 너무 더디다. 이마저도 내륙 위주라 해저 단층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릉도 남쪽 해저에 설치했던 해저지진계도 철거된 지 오래다. 해저 단층은 주변국과 공동으로라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같은 재난은 최악의 가정 아래 점검해야 한다. 즉, 최악의 지진 사태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이나 대피 장소를 모르는 이도 여전히 많다.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대피소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부실하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재

난 대비는 아무리 꼼꼼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진설계도 보강해 나가야 한다. 2023년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였지만 도내 내진설계 건물은 12.

“지난 1일 일본 도야마현에서 지진 발생으로
강릉 남향진, 묵호, 속초, 임원 등에 도달”
경각심 제고 및 대응 교육·훈련 강화해야

9%에 불과했다. 이는 충북(14.7%), 전북(13.6%)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0동 중 9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셈이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도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2만7,932동 중 3,540동에 내진설비가 갖춰져 22.5%의 내진율을 보였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2.4%에 그쳤다. 국가적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당연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